코로나19에 국내 스포츠 '올스톱' 분위기

프로축구 개막 '연기'… 3월 세계탁구선수권도 연기 검토
프로농구·컬링리그·테니스·배드민턴 등 대다수 일정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스포츠계 일정이 '전면 중단' 되는 분위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심각'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국민과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프로축구 K리그는 애초 29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여파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개막을 보류하기로 했다.

'개막 연기'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조치다.

프로배구와 여자농구 등 겨울철 실내 종목들이 '무관중 경기'로 리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열리고 경기장 규모도 훨씬 큰 프로축구는 예정대로 개막 일정을 진행하되 '무관중 경기' 정도의 옵션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축구는 또 대한축구협회(FA)컵과 세미프로인 K3, K4 리그 일정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이사간담회를 열고 26일부터 재개되는 정규리그 경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남자프로농구 주관 단체 KBL로써도 '무관중 경기'를 뛰어넘는 '리그 중단'의 조처를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사회 분위기상 '무관중 경기'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업 핸드볼 연중 대회인 SK 핸드볼 코리아리그는 4월에 끝날 예정이던 2019-2020시즌을 22일로 앞당겨 종료했다. 사실상의 '리그 중단' 조치였다.

3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24일 "세계탁구연맹과 협의해 3월 22일 개막 예정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 추첨 행사는 22일로 예정됐으나 이미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출범한 코리아컬링리그는 2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플레이오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무관중 경기로 플레이오프를 치르려다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밖에 3월 초 경북 김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종별테니스대회와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테니스연맹(ITF) 제주 국제 주니어대회도 일정이 연기됐다.

또 3월 경남 밀양에서 열리기로 했던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 리그전 초등부 대회 역시 개최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류현진, 5일 간격 실전 등판 준비 시작

28일 미네소타전 선발 예정
등판 없는 날은 자체 훈련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3·사진)이 5일 간격 등판 일정에 맞춰 훈련을 시작했다.

류현진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피칭 등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을 피하며 본격적인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마치 정규시즌 같다.

그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불펜피칭 20개, 라이브피칭(타자를 상대로 하는 실전 투구 훈련)으로 40개, 이후 불펜피칭 20개를 소화했다.

앞서 두 차례 불펜피칭과 라이브피칭으로 약 60개까지 투구 수를 올렸던 류현진은 이전보다 20개의 공을 더 던지며 어깨를 점검했다.

그리고 다음 날 투구 훈련 대신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 상태를 안정시켰다. 선발 등판 다음 날 소화하는 훈련과 비슷하다.

선발 투수들은 등판 다음 날, 뭉쳤던 어깨를 풀기 위해 투구 훈련 대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등으로 몸 상태를 다시 끌어올린다.

류현진 역시 정규시즌 때처럼 몸 관리 프로그램을 따랐다.

그는 향후 3일 동안 컨디션 조절에 더 힘쓴 뒤 28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범경기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약 2이닝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간격으로 시범경기를 치른다.

그는 다음 달 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원정 경기에 등판하거나 홈구장에서 열리는 자체 평가전에서 공을 던지게 된다.

훈련 환경은 철저히 류현진 본인에게 맞춰져 있다.

류현진은 자신이 등판하는 시범경기가 아니면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홈구장에 남거나 인근 팀 훈련장에서 따로 훈련한다.

류현진은 최근 시범경기 첫 등판을 앞둔 소감을 묻는 말에 "시범경기는 투구 수를 늘리는 것 외엔 큰 의미가 없다"며 오로지 본인의 몸 상태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리드, 멕시코 챔피언십 우승
임성재 3언더파 281타로 29위

패트릭 리드(30·미국)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총상금 105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리드는 24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인근 나우칼판의 차폴테펙 골프클럽(파71·735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의 성적을 낸 리드는 2위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의 17언더파 267타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82만달러(약 21억9000만원)다.

리드는 지난해 8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 이후 약 6개월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1년에 네 차례 열리는 WGC 대회는 PGA 투어와 유러피언투어, 아시안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샤인 투어, 호주 PGA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다.

4개 대회 모두 상금이 1000만달러 이상으로 4대 메이저와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버금가는 '특급 대회'로 분류된다.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가 12언더파 272타로 공동 9위, 임성재(22)와 안병훈(29)은 3언더파 281타로 공동 29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의 황의조(맨 왼쪽)가 24일(한국시간) 열린 리그앙 26라운드 PSG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8분 선제 헤딩골을 넣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16일 디종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으로 쾌조의 골 감각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황의조 '최강' PSG 상대로 시즌 6호골

2경기 연속 득점… 팀은 패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황의조(28)가 프랑스 최강 파리 생제르맹(PSG)을 상대로 2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6호 골을 터뜨렸다.

황의조는 2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19-2020시즌 리그앙 26라운드 PSG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8분 선제골을 넣었다.

지난 16일 디종전에서 골을 넣었던 황의조는 이로써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쾌조의 골 감각을 과시했다. 지난 6일 브레스트전을 포함하면 4경기에서 3골을 넣었고, 모두 머리로만 득점했다.

황의조는 전반 18분 토마 바시치가 올린 코너킥을 문전에서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했다. 슈팅은 PSG 수비수 틸로 케러의 손에 맞은 뒤 골대 왼쪽 하단 구석으로 향했다.

황의조에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총 7골이 나온 접전 끝에 보르도는 3-4로 패하며 승점 35점으로 12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LG 2루수는 정근우와 정주현 중 누가 될까?

1차 전지훈련 마친 LG 트윈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류중일(사진) 감독이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열리는 연습경기와 3월 중순 시범경기에서 4가지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 인근 블랙타운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친 류 감독은 24일 구단을 통해 "선수들의 부상 없이 훈련이 잘 진행돼 만족한다"며 "앞으로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4·5선발과 오른손 대타 자원, 빠른 대주자를 찾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전 2루수 후보인 정근우와 정주현이 훈련을 잘 소화했다"며 둘 중에서 붙박이 2루수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LG의 1~3선발 투수는 타일러 윌슨, 케이시 켈리, 차우찬이다.

4~5선발을 두고 임찬규, 송은범, 정용운, 이상규, 여건욱이 경쟁한다.

류 감독은 "재활 중인 투수 중에선 김지용과 김대현의 페이스가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우투좌타인 거포 로베르토 라모스를 두고 "우리 팀 4번 타자 후보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흡족해 했다.

LG는 24일 일시 귀국한 뒤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2차 전지훈련을 벌인다. 연합뉴스